

‘코로나’ 확진 교사와 접촉한 광양 고3, 수능은 어떻게 ‘관심’

집단 확진 예방·방역위해 1주일전 전체 원격수업 확진 발생하면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 이용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치러

광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다음 달 3일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광양시와 광양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지도한 교사(전남 198번·순천77번)가 ‘코

로나19’에 확진돼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교사의 확진에 따라 수업을 받은 3학년 수험생 16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1학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10일 학생과 교직원 575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수험생의 자가격리에 따른 수능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여부와

수능 전까지 학사 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광양교육지원청 조경자 교육장은 11일 시민에게 드리는 발표문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육장은 “12월 3일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을 전

환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확진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생활 치료센터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장은 이 외에도 “교사가 확진된 고등학교의 1학년은 10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23일까지 2주간 진행하고, 2학년과 3학년은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 등교 수업한다”며 “유

초중고 교장 영상 회의를 개최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학생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장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학교 교육 관심 및 염려로 교직원과 학생 575명 전원이 음성 판정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고3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노조원의 메시지’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경고파업에 들어간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메시지가 적혀 있다. 노조는 11일 오후3시~오후9시, 12일 오전 4시~7시까지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광주교도소·체육시설·유흥업소발 접촉자 600여명 ‘긴장’

유흥업소 방문사실 숨기고 있어 역학조사 어려움

최근 광주교도소·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 등 방역 취약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접촉으로 인한 검사자 수도 600명을 넘어선 등 추가 확산 여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는 ‘광주교도소 직원(광주520번) 감염’에 이어 ‘확진자(525번)가 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 이용’ ‘유흥업소 종사자(528번) 확진 판정’ 등 방역 취약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610여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광주교도소에서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524번)와 지인 2명(522·523번)이 추가 감염돼 총 4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광

주교도소발 접촉자 수를 파악하고 현재 재소자 23명 포함해 344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2명(직원)은 양성 판정, 재소자 등 189명은 음성이 나왔다. 15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 확진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감염이 확인된 광주525번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지난 8일 오후 6시20분~9시 실내배드민턴장, 9일 오전 7시~8시 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밀접접촉자 6명, 같은 공간 이용자 2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수영장은 밀접접촉자가 20명, 탈의실 등 같은공간 이용자가 198명으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이다.

수영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의실 등을 이



용했을 것으로보고 방역당국은 추가 검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흥업소의 경우 광주528번과 접촉한 접촉자는 업소주인 등 48명이며 이중 34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14명은 소재를 파악해 검사 받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와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의 경우 방문기록 등이 남아 있어 기록을 토대로 통보를 하고 있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이용객이 방문사실을 숨기고 있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이탈 40대, 사흘 만에 잡았다

광주 남부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중인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도심에서 자가 격리 대상자인 A(41)씨가 붙잡혔다.

A씨는 7일 오후 10시(추정)께 휴대전화를 놔둔 채 광주 남구 주월동 자택에서 빠져나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겼다. 이후 울산에서 온 아내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광주소방학교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격리 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함께 입국한 후배 B씨도 A씨의 자

택에 격리됐다.

후배 B씨는 A씨가 자택을 빠져나간 다음날인 8일 오전 8시께 A씨의 자가 격리 앱에서 위치 파악 알람이 울리자, 대신 응답해 방역당국에 혼선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곧바로 광주소방학교로 옮겨져 시설 격리 조치됐다.

한편, 남구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봉우기자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1일 법정동 1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나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구형했다.

나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현 의원은 보좌관 채용 대가로 A씨의 급여를 착복했다. 선고 재판은 12월 9일 열린다.

앞서 나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제명된 이후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했다.

제명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법원의 두 번째 집행 정지 인용으로 지난 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